

## 함께 푸는 미스터리<6> 해답

올해 54세의 최윤희교수는 언제나 배후에서 어려운 범죄사건의 해결을 도와 주고 있다. 언론매체에서 '가면을 쓴 시체'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번 사건에서 박인엽씨가 고발된 것처럼 과연 노만석씨의 살해범인가를 가려 내는데 경찰청은 최윤희교수의 힘을 빌게 되었다.

박인엽씨를 심문한 이 범죄학의 대가는 박인엽씨의 진지한 면에서 감동을 받았다. 박인엽씨는 노만석씨 피살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그 사람을 죽일만한 동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인엽씨는 노만석씨의 로켓-엔진 계획서는 속임수로 자기의 서재에 감춰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최윤희교수는 노만석씨가 목 맨채 발견된 침실로 올라갔다. 그는 로프의 길이, 노금석씨의 키, 서가용 사닥다리 그리고 뒤집힌 의자 등 일련의 증거물을 쭉 살펴 보았다. 그러나 최윤희교수에게는 노만석씨가 자살을 했다는 이론을 부인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로 비쳤다.

최윤희교수는 남경감의 주장처럼 박인엽씨가 과연 스스로를 옹아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가 생각해 보았다. 남경감의 주장처럼 박인엽씨는 왜 서가용 사닥다리를 의자와 바꾸었

을까? 간단히 사닥다리를 차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로켓 과학자인 박인엽씨가 의자와 죽은 사람의 발 사이의 간격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렇다면 진범은 의자를 사용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최윤희교수는 생각했다.

### 가면을 쓴 시체

문제는 혐의를 둘 만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함께 있었고 그중 어떤 한 사람도 유죄쪽으로 끼워 넣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윤희교수는 해답을 찾았다고 결론지었다.

남경감은 최윤희교수의 설명을 듣기 위해 박인엽씨, 김소영씨, 김하수씨, 그리고 민애라씨를 불러 들었다.

“박인엽씨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최윤희교수는 말문을 열었다.

“죄인은 이 세사람들입니다. 동기는 김소영씨가 챙길 10억엔의 생명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김여사는 다른 두사람에게 제 뒀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들은 동의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노만석씨를 죽였다구요?” 남경감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최윤희교수는 머리를 내저었다. “노만석씨는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은 자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하수씨가 노만석씨의 목맨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다른 두사람에게 알렸을 때 자살을 살인처럼 꾸미는 것 외에 다른 수작을 꾸밀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윤희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노만석씨가 스스로 목을 맬 때 그는 서가용의 사닥다리를 이용했습니다.

남경감이 용단에서 옴폭 패인 자국을 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사람은 자살하기에는 의자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수사관들이 금방 알아차리게 사닥다리를 옮겨 의자로 대치한 것 뿐입니다. 이들은 또 노만석씨의 설계도를 박인엽씨의 책상에 속임수로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남경감은 세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장기복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음 고백한 사람은 민애라씨였다. 그녀는 최윤희교수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하수씨와 김소영씨도 고백했다. **ST**